

## 2012 EAACI(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참석 후기

연세대학교 알레르기 내과  
전공의 박경희

2012년도 EAACI는 2012.6.16~2012.6.20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처음 가보는 나라였기에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제네바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프랑스 파리를 거쳐 6월 15일 저녁 드디어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제네바는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스위스와는 거리가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답게 대중교통이 매우 잘 되어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매우 친절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학회 장소는 'Palexpo'로 저희가 묵었던 Phoenix 호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학회 시작 날인 6월 16일, 처음으로 해외 학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학회 등록을 하는데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국적이 같이 표기 되어있었는데 주로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한국과는 너무 다른 학회 풍경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 마냥 여기저기를 두리번 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여 무엇을 선택하여 들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학회 내용 및 장소에 대한 application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날의 강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의들 보다는 기존 지식의 education에 가까웠는데 Basic science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주로

임상 관련 강의들이었던 PAPRICA session을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연자들은 하나같이 대가의 면모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노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회의 두번째 날은 강의 보다는 다음 날 있을 포스터 발표를 위해 주로 포스터 관람 및 discussion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학회의 포스터 발표와는 달리

EAACI의 포스터 발표는 연구 주제도 정말 다양하고 포스터의 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지나갔고 활발한 dicussion이 이루어지는 포스터들도 많았습니다.



학회 참석의 목표 였던 포스터 발표는 6월 18일 이었습니다. 오전에 plenary symposium과 ACAAI symposium을 듣고 빨리 점심식사를 먹은 뒤 저의 포스터 앞에 서있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은 'Specific IgE measurement using a new enzyme immunoassay system: comparison of detection performance with an existing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system in Korean allergy patient'였습니다. 동양에서 온 여자가 긴장한 얼굴로 서있어서 인지 아니면 포스터 제목이 Korean system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한 주제여서 그런지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활발한 dicussion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10시쯤 되어야 해가 지는 유럽이기에 학회 일정이 끝나고 해가지기 전까지 제네바 시내를 구경하기도 했고 종교개혁 동상이 있는 바스티옹 공원에서 풀밭에 누워 망중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네바 시내에는 옛모습을 간직한 길, 트램, 성당, 그리고 수많은 노천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시계의 나라답게 레만호를 따라서는 온갖 시계 회사 건물들이 있었고 스위스 제네바에 온 만큼 파텍필립 시계 박물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 같이 학회에 참석한 선생님들과 2번의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한번은 제네바에서 찾기 힘든 한식당에서의 식사였고 또한 번은 레만호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경의 캄핀스키 호텔에서의 식사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을 뵈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들른 학회의 부스에서는 벌써 앞으로 열릴 여러가지 학회에 대한 홍보물들을 나눠주고 있었고 2013년 EAACI는 WAO와 함께 Italy Milan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참석을 기대하며 학회장을 나섰습니다.